

광복 50년과 도서관의 세계화

최 성 진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도서관장〉

여러 회원들께서도 아시다시피 한국도서관협회는 해방후 보름이 지난 1945년 8월 30일 박봉석선생 주도하에 조선도서관협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금년은 광복50주년인 동시에 우리 협회의 창립50주년이기도 합니다. ‘광복50년, 협회50년’이라는 역사의 시점에 서서 우리는 지난 반세기 동안 협회의 과제로 정하고 노력해 온 일들을 돌아보고 앞으로 할 일들을 내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지 못한 일들은 앞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여 성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나름대로 노력하였으나 만족할 만 한 수준으로 이루지 못한 일들은 적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다 들어 한정된 시간에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도서관봉사분야에서 저 자신의 책임, 좀 더 포괄적으로 말하여 이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와 이론가의 책임과 관련된 것으로 미취 또는 실패한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앞으로의 과제

에 대하여 몇가지 제의를 하면서 기조연설을 가름하려고 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우리는 ‘마을문고’운동을 비롯하여 국민에게 더 많은 책을 더 편리하게 읽히기 위한 여러가지 독창적 운동과 시도를 하여 왔습니다. 그중의 많은 것은 기대한 수준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거나 실패하였습니다. 실패의 주요 원인은 그러한 운동과 시도들이 적절한 지적 기반을 가지지 못한채 시작되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 이용자들이 책에 더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돕기 위한 여러가지 독창적 운동과 시도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운동과 시도는 반드시 그것을 뒷받침하는 지성, 즉 역사의식, 기술현황,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 그검토를 바탕으로 한 이론의 정립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검증된 이론이 마련되지 않은채 무작정 어떤 새로운 운동을 시작하거나 개혁을 시작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그런 운동이나 개

력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도서관봉사와 정보봉사 현장에 필요한 여러가지 이론과 기술을 공급하는 일은 문헌정보학 연구자, 주로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몫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봉사의 발전조건으로 첫째, 충실한 장서, 둘째, 그 장서를 소장하거나 이용할 적절한 시설, 셋째, 그 장서와 시설을 운영할 잘 훈련된 충분한 전문직 인력, 넷째, 그 장서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교육받은 이용자를 생각합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이 도서관봉사의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분한 조건은 아니며, 도서관봉사가 발전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지적 기반입니다. 지적 기반이 없으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봉사의 적절한 적응이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학연구의 성과, 즉 의료기술의 지적 기반이 없이 의료봉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직분야의 지적 기반은 연구활동을 통하여 형성되며, 도서관전문직을 포함한 대부분의 전문직분야에서 연구활동은 대학의 해당 전문직 양성 학과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문직 양성 학과들은 해당 전문직과 관련된 모든 기존 지식을 보존함은 물론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여 양자를 체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전수함으로써 전문직의 사회적 사명의 수행능력을 신장시킵니다. 그렇게 연구활동과 교육활동이 공존하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불완전한, 혹은 시대에 맞지 않는 현행 기법들이 연구성과로 어떻게 개선 또는 완성되어 가는지 배우는 것입니다. 교수는 연구개발 성

과를 지체없이 학생들에게 가르침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따라 현재의 전문직 활동 내용과 방법이 변화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전문직 교육과 연구의 공존환경은 학생들에게 현행 봉사의 내용과 방법이 연구개발 성과에 의하여 어떻게 변화 발전되는지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전문직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적 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후자의 효과는 평생 지속되는 효과로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전문직 양성 학과의 이러한 일반적 특성은 문헌정보학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문헌정보학 교수들은 도서관봉사분야에 축적된 모든 기존 지식과 연구개발을 통하여 얻은 새로운 지식을 학생들에게 효율적으로 전수하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도서관전문직이 현재 무엇을 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늘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복 50년을 맞은 오늘 한국은 지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 가운데 하나에서 일어나 세계 11대 경제국이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던 나라가 “세계화”를 지상과제로 채택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도서관계는 국가의 세계화 성취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당연히 도서관봉사의 세계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도서관봉사의 세계화는 이 나라의 전문가와 일반독자가 필요로 하는 세계문헌을 모두 수집하여 공급하는 것이 그 중심입니다. 여기서 세계문헌을 사들여 도서관마다 가득히 채우고, 필요한 시설을 마련해 갈 능력은 오늘의 한국 경

제력이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관봉사에 대한 국가정책 입안자들의 이해 부족이 문제일 뿐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이 문제도 해결의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가지 예로 지난 몇 해 동안 사립대학 도서관을 포함한 전국 대학도서관에 대한 도서구입비의 국고지원금이 대폭으로 증액되어 온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한국에는 좀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많은 문헌정보학과가 대학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장서를 다룰 유능한 사서직의 배출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열을 자랑하는 한국에는 이용자들의 수준같은 문제는 이전부터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도서관봉사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것은 도서관봉사의 지적 기반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도서관봉사의 지적 기반은 매우 취약하며, 그것이 이 나라 도서관봉사의 세계화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요소라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이 나라 도서관봉사의 취약한 지적 기반은 물론 이 나라 문헌정보학 연구자들의 연구개발활동이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문직 봉사의 지적 기반은 연구개발활동의 성과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헌정보학분야의 연구활동이 정상궤도를 가지 않고 있음을 저는 몇가지 사례를 들어 좀 구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합니다.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잡지를 읽다가 이런 것도 우리나라의 도서관봉사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하고 생각되는 기사와 마주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사들을 보면서 도서관전문직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도서관 전문직은 성직이나 법률직과 같은 다른 제도적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특정 사회제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활동하며, 그 사회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도서관전문직의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은 한국의 도서관과 그 환경을 이루는 한국의 문화와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과제들을 선정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 연구만이 한국 도서관봉사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도서관은 오랫동안 박물관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그것이 바로 영국 도서관의 전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국의 도서관봉사 연구자들은 그 나라 특유의 도서관 구조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진 연구성과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영국에서 만들어진 문헌정보학 이론들은 기본적으로 영국문화 속의 도서관봉사와 영국 고유의 여건 속에서 운영되는 도서관을 설명하기 위하여 정립된 것이고 다른 나라의 문화환경과 사회적 여건은 고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도서관현상의 일반적 측면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의 도서관이 다 유사한 상황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한국의 도서관봉사 발전에 기여하여야 하며, 그러기 위하여 연구의 대상이 이 나라 도서관봉사의 현실과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수행한 한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이 된 64편의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잡지 기사 중 한국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연구는 45.3%, 약하게 관련된 연구는 35.9%,

전혀 관련되지 않은 연구는 18.8%이었습니다. 약하게 관련된 연구, 즉 별로 관련되지 않은 연구와 전혀 관련되지 않은 연구가 전체의 54.7%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믿기도 어렵습니다. 도서관봉사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고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에서 수행되는 문헌정보학 연구의 반 이상이 이 나라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나라에서 문헌정보학의 연구가 왜 필요합니까? 이 나라의 도서관봉사 발전과 관련되지 않은 문헌정보학 논문은 어디서 필요로 합니까? 이 나라에 도서관이 없어도 문헌정보학 연구가 필요하며 문헌정보학자가 필요합니까?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이 기본적인 물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헌정보학은 본래 봉사전문직 안에서 그 발전을 위하여 생겨났으며 처음부터 학문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은 학문성보다 현실성이 높은 학문입니다. 문헌정보학의 이 특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유럽 제국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을 대학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문제에 대한 결정을 오랫동안 유보하여 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면 학문성이 지나치게 강조될 위험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문헌정보학자들은 그들이 하는 학문의 이 특성을 잘 이해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발견된 이론이 한국의 도서관봉사 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 이론이 그대로 한국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간과합니다. 외국에서 개발하여 재배에 성공한 신품

종 벼가 한국풍토에 그대로 이식되어 재배에 성공을 거두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적응 절차를 거친 후에야 재배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령 영국의 지역중앙도서관과 국립중앙도서관을 주축으로 하는 전국 도서관협동체제나 미국의 국립의학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의학정보시스템 "MEDLINE"의 모형을 그대로 한국에 이식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비현실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도서관협동체제는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는 대형 공공도서관들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그런 공공도서관들이 없습니다. 또 미국의 의학정보시스템은 세계 최대의 의학도서관인 국립의학도서관이 중심이 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역시 그런 국립의학도서관이 없습니다. 여건에 큰 차이가 있는 한국에서 이 두 시스템 모형을 도입하려면 한국의 여건에 맞게 모형 자체를 상당히 수정하여야 합니다. 그런 수정활동은 한국 도서관봉사 발전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도서관 상황과 관계없이 외국이론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글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 두가지 사례를 모든 외국이론에 적용시켜 일반화하고, 외국 문헌정보학의 이론들은 한국 도서관봉사 발전에 전혀 무가치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국 도서관봉사와 특정 외국 문헌정보학의 현실 사이에는 보이게 혹은 보이지 않게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어느 외국 문헌정보학 이론을 도입하여 그대로 한국 현실에 적용하려는 단순한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외국이론들을 외국 학술잡지에서 읽는 것은

좋은 일이며 문헌정보학자들에게는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읽은 외국이론들을 그대로 우리 상황에 적용시키려는 무리한 시도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 척의 배를 견고하게 지으면 그 배에 탄 선원들의 생명을 해난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상 천문학을 연구하여 북극성이 북극에서 아주 가까이 있으며 그 위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야간에 북극 대용으로 방위 지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사실은 많은 조난선의 많은 선원의 목숨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배를 튼튼하게 짓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천문학의 이론을 밝히는 일은 더 좋은 일입니다. 후자는 연구를 하는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 도서관봉사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한국 도서관봉사의 문제를 두고 두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일반화된 이론을 만드는 일은 더 좋은 일입니다. 그것은 한국문헌정보학을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저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의 주요 문헌정보학회지에 발표된 기사중 한국문헌정보학의 정립에 기여하는 연구관계 기사가 전체의 3분의 1도 못 되는 32.8%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이는 외국의 문헌정보학 선행연구를 발전시키는 노력을 하면서 한국문헌정보학 발전에 기여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입니다. 웨익스피어의 희곡을 한국에서 한국인이 연구하더라도 그것은 영문학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이며 한국문학 발전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한국문헌정보학은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을 개

발함으로써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은 특별한 경우이며, 실제로 64 편의 조사 대상 기사중 그런 내용을 담은 기사는 한 편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문헌정보학의 정립은 점진적으로 착실하게 일반적 학문발전 과정을 통한 발전을 기대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일반적 학문발전 과정은 기존 이론을 비평, 보완하는 것이며, 그것은 선행연구 문헌을 인용하는 일로부터 시작됩니다. 19세기 전에는 세계 주요 학술잡지 기사의 대부분이 기존 이론과 발견들에 대한 비평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자의 글이었습니다. 그것이 각 분야 학문의 기초를 착실하게 다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의 한 특성은 자기 수정성입니다. 어느 연구에서나 결론의 진실성은 그 연구에서 수집 분석된 자료의 범위내로 한정됩니다. 그런 결론은 후속 연구를 통하여 선행연구에서의 과오가 발견되거나 해당 상황에 대한 더 포괄적인 분석 또는 더 정확한 분석이 제시됨으로써 수정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학문의 탐은 벽돌 위에 벽돌을 놓는 식으로 높아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선행연구를 비평하여 잘못 된 것이라고 입증된 이론을 폐기하고 여러번 옳은 것이라고 확인된 이론을 기존 지식체계 속에 넣어 확대하는데 있어서 연구자간 개인적 관계의 고려나 감정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하며 끝없는 비판정신과 “그것은 사실인가”라는 물음만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한국문헌정보학의 정립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는 한국문헌정보학의 선행연구를 인용하고 그것에서 연구를 시작하여야 합니다. 한국문헌정보학 선행연구의 결론과 발견중에는 외국 문헌정

보학 선행연구의 그것들에 비하여 새롭지도 않고 호기심을 덜 끄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논문들을 외면하고 외국 학술잡지 기사의 추적에만 정신이 팔려 있으면 한국문헌정보학은 언제, 어떻게, 누가 정립할 것입니까? 낮은 데서부터 시작하여야 합니다. 꾸준히 벽돌을 쌓아가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벽돌이 가끔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아무도 쌓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그것들은 무의미하게 흩어져 있을뿐 높아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국의 도서관봉사와 관련된 필요나 문제를 다룬 연구결과가 나오면 한국의 모든 문헌정보학자들이 기뻐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비평하기 시작하여 많은 새로운 연구로 이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풍토가 조성될 때 연구자들은 더 좋은 논문을 내려고 애쓸 것이고, 결국 우리나라 도서관봉사 발전의 지적 기반이 될 한국문헌정보학의 발전이 가속될 것입니다.

한국의 문헌정보학자들은 어떤 연구과제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 이 나라의 문헌정보학자들이 해야 할 과제인가? 한국문헌정보학의 정립에 기여할 과제인가? 적어도 한국 도서관봉사의 중요한 문제나 필요와 관련된 과제인가? 한국문헌정보학의 정립에 기여할 과제를 수행하려면 한국 도서관봉사의 현장을 알아야 합니다. 현장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감각 없이 현장에 유용한 연구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구의 결과는 허구와 공론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국산업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감각 없이 책상머리에서 주로 외국의 산업정책들을 참고하여 수립한 비현실적 산

업정책과 같은 것입니다.

많은 문헌정보학자들이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대하여 도서관장과 사서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연구자와 연구성과 소비자간의 밀접한 관계는 어느 전문직분야에서나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의사들이 시간 나는 대로 의학잡지를 읽으며 최근 연구의 발견들을 한 시라도 빨리 알아서 자기 환자의 치료에 활용하려고 하는 절박한 요구와 같은 것이 도서관분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서들만의 탓이겠습니까? 그동안의 연구들이 과연 한국 도서관봉사 현장에 쉽게 적용 가능하고 유용한 것이었는지, 한국도서관이 걸려 있는 병이 무엇이며 이 나라의 도서관 이용자들이 자료의 입수와 이용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한 것인지 문헌정보학자들은 한 번 스스로 물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도서관봉사의 발전은 이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광복 50년을 맞으면서도 아직 도서관봉사의 선진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오늘 우리는, 그동안 한국에서 수행된 연구의 성과가 도서관 전문직의 발전에 기여하였는가? 기여하였다면 얼마나 기여하였는가? 연구활동을 통한 문헌정보학자들의 지적 기반 형성노력이 없었다면 이 나라 도서관 전문직 분야의 발전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구하고 건설적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문헌정보학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문헌정보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한국 도서관봉사의 세계화는 비로소 그 성취의 문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